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3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종

1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축사

김종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 서울법대 이야기

전상현 교수 · 서울법대의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하여

고명수 형사법 신입교수 · 인간과 사회에 관한 관심으로 형법총론 공부의 재미를 깨닫기를

이은상 행정법 교수 · 이론과 실무의 교차점에 선 행정법 연구자

13기 송창희, 윤소현, 최정호 · 우리가 학술적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

김현우, 이현아, 허지영, 김정은, 최승훈 · 5인 5색 로스쿨 재학생 조교 활동기

15기 김택민, 최하늘, 조승완, 김범수, 김민제, 임기혁, 박연정, 엄정호, 최서린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어느 특별한 송년회, 연말 봉사

15기 이윤하, 송준선, 박정우, 이은서, 이다정 · 56년간 쌓은 모의재판, 서울법대 국제법학회

15기 김유신 학생 · 청일점이지만 회장입니다

14기 김연두 박진규 원지희 · 실력보다 빛나는 단단한 우정

12 기획기사

법대의 시설관리직 근로자를 만나다

14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17 연구소·센터 소식

20 릴레이 도서 추천

기금 안내

SNU Law 캠페인 안내

Next Decade 기금 안내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3. 9. 1. — 2024. 2. 29.

예우 안내

정의의 종 39호

발행인, 김종보 원장

편집인, 최준규 학생부원장

기획 및 취재, 김민제 임은지 최승훈 학생기자

제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찬란한 보석이 될 것

사랑하는 서울법대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서울법대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2009년 로스쿨 1기를 모집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적지 않지만, 로스쿨 제도는 종래 오랜 기간 시행되었던 사법시험제도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법시험제도가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이라는 점에서, 과거 시험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와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홀로 공부해서 시험의 성적에 따라 선발되는, 그래서 당락이라는 결과에 의존해 법률가가 되었던 종래의 법조인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와 달리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법률가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럿이 지나가야 하는 길에서 통로가 좁아지고, 그 좁아진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법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넓은 운동장에서 각자의 트랙을 부여받고 자기 앞에 놓인 몇 개의 허들을 넘으면 누구나 결승선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교육과정은 모두 개개인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허들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옆에 있는 동료들과 경쟁해서 결승점을 먼저 통과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반에 먼저 가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어차피, 어디에서 인가 동료들을 기다리고 같이 가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법대에서 보내는 3년이 신입생 여러분에게, 스스로 호흡을 조절하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자기 앞에 놓인 과제를 차분하게 해결하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법률가가 되고 싶어 서울법대에 입학했겠지만, 무엇을 배우면 법률가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할 것이라 추측합니다. 앞으로의 3년은 아 이런 것을 배우려고 법대에 들어왔구나 하고 깨우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로스쿨이 실무를 연마하기 위한 직업학교에 가까운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법대는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법대에서 중점적으로 배우

는 것은 실무나 법률이 아니라 법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법대의 교수님들은 물론 실무에 정통하시지만, 그 이전에 모두 위대한 법학자들이고 훌륭한 연구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을 훌륭한 법률가로 빚어 내시겠지만 실무를 가르쳐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완성은 선생님들이 보유한 높은 수준의 법학이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학문으로서 법학을 배우는 3년의 과정에 입학했음을 지금 마음 깊이 잘 새기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신입생 여러분의 내면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 있습니다. 그 원석이 어떤 보석이 될 것인가는 이미 타고난 자질에 달려있겠지만, 잘 다듬으면 찬란한 보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내면에 있는 아름답고 맑은 원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원석을 잘 다듬어서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 내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도와줄 겁니다. 법대에서 3년이 지나 여러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한 법률가로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엄청난 양의 공부에 시달려서, 아마 로스쿨 기간 내내 체력 저하로 고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학기 중에 틈틈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잘 챙기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몸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 몸이 강건하지 못하면 마음도 또 정신력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법대생을 위한 체육 교과목, 법대의 운동시설과 운동프로그램도 있고, 또 운동 동아리도 많이 있으니 적절한 방법으로 체력을 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신입생 여러분을 지원하고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과 입학식을 정성껏 준비해 준 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서울법대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3년을 보내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 종 보

서울법대의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하여



전 상 현 교수

“로스쿨은 법률가 교육과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후자의 역할은 많이 약화 된 것이 사실이지만요.” 서울법대 학문후속세대 양성센터 센터장으로서의 고민이 드러나는 문장으로 전상현 교수와의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한 시간 남짓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지식의 ‘발견’이 있어야 올바른 ‘전달’도 가능함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했다. 인터뷰 내용을 담아낸 이 글이 서울법대 구성원들과 공유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발견, 즉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추구하는 일을 현행 제도 아래에서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법대의 역할

센터장으로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센터의 설립 취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환기하며 답변했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을 하는 곳이다. 연구를 통해 교육하고, 교육을 통해 연구한다. 그러나 과거 학부와 대학원, 나아가 사법연수원의 기능까지 로스쿨에 흡수되면서, 그 구성원인 서울법대 교수자와 학생 모두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교육의 기능에 집중하게 된 것이 작금의 현황이다. 짧은 시간에 기존의 지식을 흡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직장을 찾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한 진지한 탐구의 시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울법대 학문후속세대 양성센터의 주요 사업

“그래도 항상,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전상현 교수는 법 실무와 학문은 결국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 필요적 관계에 있다는 자명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다음 세대의 법학도들이 학문을 이어나갈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석사 논문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비록 실직심사로 간이화된

형태가 오히려 원칙처럼 자리 잡았지만, 적어도 10%의 학생은 석사 논문을 가지고 졸업하게 하는 것이 ‘서울법대 미래 연구자 포럼’의 목표다. 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논문 작성에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연구실 단위로 실험 등을 진행하는 다른 학문과 달리 법학은 혼자 하는 외로운 학문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법학을 전담하는 연구자의 양성이 어려워졌으므로, 바쁜 와중에도 연구를 이어나가는 실무가들이 초심을 놓지 않도록 공동체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심양면 지원하는 것이 센터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센터에서 진행되는 ‘학술적 대화의 장’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학술적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특강 또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학생이었더라도 ‘연구자의 길’ 동영상 등을 통해 교수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찾아볼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법’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남이 제시한 정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이해 방식으로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신의 고유한 논리로 표현하는 것이 학문의 시작이라고 전상현 교수는 말한다. “판례와 법조문이 맞는지 의문을 밀고 나가세요. 그 과정에서 같은 의문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논문이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는 겁니다. 나아가 다른 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나? 있다면 그 나라의 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이렇게 의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학‘문’일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전상현 교수의 말을 곱씹어보며 법학도로서의 본지를 고민하고는 두 문장을 남겨 두었다. 질문하자. 의문을 가지고 밀고 나가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기자

인간과 사회에 관한 관심으로 형법총론 공부의 재미를 깨닫기를



고 명 수 형 사 법 신 입 교 수

고명수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20년에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형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강원대, 단국대,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활발히 형법을 연구, 강의하다 올해 우리 학교 전임교원으로 부임한 고명수 교수와 인터뷰하였다.

형법 연구자의 길을 줄곧 걷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소년법을 연구하여 학위를 받고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수사관으로 복무했죠. 강의하고 연구하다 보니, 실용연구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저는 형법 도그마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한 연구들은 사상누각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형사법 체계에 맞는 토대를 세우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전역 후 독일로 유학하러 가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형법 도그마틱은 틀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처벌과 그 근거 규정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연구예요. 그리고 규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신만의 논거를 더해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예요. 특히 원하는 결과에 이론을 맞추는 것이 도그마틱의 임무가 아님을 유의해야 해요. 그때 공부의 즐거움을 알고 현재까지 도그마틱과 형사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에게 형법총론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십시오.

시험 문제는 종합 사례로 출제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총론을 배울 땐 총론만, 각론을 배울 땐 각론만 봐요. 총론과 각론을 넘나드는 종합적인 공부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총론 공부가 무너지면 총론이 구현되는 각론도 당연히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죠.

형법총론은 규정에서 출발하는 공부예요. 규정을 해석할 때 비어 있는 부분을 어떤 관점으로 볼지에 따라 학설이 대립하고요. 이론들을 넓다 외우는 식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왜 대립하는지

를 봐야죠. 한편 대부분 공부할 때 사례를 가지고 이론들이 어떻게 분화하는지 살펴보잖아요. 거꾸로도 해보세요. 특정한 이론이 어떤 사례에서 의미가 있을지 한번 만들어보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의 첫 수업인 <형법1> 진행 계획은 어떠한가요.

신입생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수업하긴 할 거예요. 이론이 어떻게 사례로 구현되는지 수업 중에 충분히 다룰 겁니다. 수업에만 집중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게끔 구성할 거고, 부담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부하고 싶은 말은 “1학년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이론을 얼마나 고민하고 공부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공부 과정에서 ‘질문하는 자세’의 중요성도 강조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법학은 답이 없잖아요. 본인 논거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을 통해 법학적인 능력이 오르게 된다고요. 다만 질문을 위한 질문, 이를테면 혹여나 평가에 도움 될까 싶어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은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 질문만 아니라면 마음껏 해주세요.

‘로스쿨에서의 경쟁’과 관련하여 신입생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조인으로서의 미래를 길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경쟁 속에서 너무 오래 계셔서인지 쉬지 않고 경쟁합니다. 그렇게 평생 경쟁하면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경쟁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에 관심을 가지시는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일평생을 책과 씨름해야만 하는 분야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과정에서 로스쿨에서의 인연이 도움이 클 거예요. 동기간에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이론과 실무의 교차점에 선 행정법 연구자



이 은 상 행 정 법 교 수

이은상 교수가 지난해 9월 아주대 로스쿨에서 본교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을 계속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도 임명됐던 그는, 14년 가까이 걸어온 법관의 길에 머무르는 대신 학문의 길을 택했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신입 교수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에게 행정법과 함께해 온 지난 세월과 앞으로의 목표에 관해 물었다.

법대 졸업과 동시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그는 연수원 및 법무관 생활과 병행하여 행정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전문 분야로 행정법을 택하게 된 계기에 관해서는 당시 행정법 신입 교수였던 박정훈 교수와의 면담 얘기를 꺼냈다. 민법을 전공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든 내 연구실로 찾아오라”라는 교수님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찾아갔더니 바로 행정법 전공으로 설득당했다며 웃음 지었다. 대학원 입학 전부터 꾸준히 행정법이론실무학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행정법에 대한 학문적 탐구심을 자연스레 자극했다고도 덧붙였다.

박사과정 수료 후에는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 행정부에서 행정법 이론을 실무와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했다. 그러나 매년 한 편의 논문이라도 작성하자는 목표는 법원에서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점차 요원해졌다. 이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법관 장기연수를 하며 독일 재량행위 이론에 관한 박사논문 작성을 시작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Ermessen(재량행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학술자료라면 모두 복사해 한국으로 돌아온 뒤, 1년 넘게 법원 업무와 학위논문 작성을 병행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새벽까지 논문 작성을 이어간 당시의 열정에 관해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사 학위 취득을 통해 비로소 누군가를 가르칠 자신이 생겼다. 법관 생활을 이어가던 중 대학원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전 아주대 로스쿨 백윤기 원장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이 왔다.

오랜 시간 연구와 후학 양성에 대한 꿈을 키워왔기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제안을 수락했다.

행정법은 연혁상 민사법 일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으면서도 국가와 행정의 측면에서 독자적 법원리를 발전시킨 점이 특징적이다. 이은상 교수는 행정법이 법치국가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고 본다. 사회변화에 따라 법치국가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행정법은 다양한 공·사의 간의 총체적인 형량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방식과 해석론을 제공한다.

본격적인 학자의 삶에 접어든 그는 실무와 괴리되지 않은 이론의 정립에 힘쓰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 믿는다. 법학 이론은 실무와의 선순환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 동안의 행정법 실무 경험을 연구에도 적극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기도 하다. 복지 행정, 의약 행정 등 다양한 하위 분야에 관심사가 있는 그는 행정 실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

이은상 교수는 모교에 돌아온 소감을 묻자 “제가 가진 역량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서울대 로스쿨이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산실인 점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학문 세계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논문 지도에 열정을 다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용을 갖춘 법조인을 길러내고 싶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임은지 학생기자

우리가 학술적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



13기 송창희 윤소현 최정호

로스쿨생의 본분을 단지 수험법학에의 매진으로 한정하는 것은 서운한 얘기다. 바쁜 학업 중에도 좋은 법률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법학을 침착하게 음미하는 학생들이 있다. 지난 2월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은 윤소현, 최정호 학생은 동반매도요구권 약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평석을 작성해 제8회 학봉상의 법학논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학년이 된 송창희 학생은 3차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를 다룬 판례평석으로 제8회 한국민사법학회 논문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세 사람에게 로스쿨생의 학술적 글쓰기가 가치 있는 이유를 물었다.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정호, 윤소현 학생은 로스쿨 입학과 동시에 학생주도학술지 『법학평론』 편집위원회에 합류하며 법학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소망을 키워왔다. 이번 학봉상 수상작은 작년 4월 발간된 『법학평론』 제13권에 실린 판례평석이다. 윤소현 학생은 로스쿨 3년이 짧지만 변호사시험 공부 외에도 오래 남을 수 있는 나만의 것을 남기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최정호 학생은 누구에게 보여줘도 이해 가능한 형식과 내용으로 써야 좋은 글이 되므로 그 작성 과정을 통해 법학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창희 학생에게 글이란 학술적 자극을 깊이 있는 탐구로 끌어가는 도구다. 마찬가지로 『법학평론』 편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그는, 동료 편집위원의 글을 검토하면서 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의식을 가졌다. 직후 학기에 김재형 교수의 〈민사법심화연구〉 수업에서 해당 판례를 다룬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그는 수업 수강과 판례 연구를 결심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 수상작은 해당 수업의 기말과제를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로스쿨생이 쓰는 논문의 가치

수험법학과 법학연구를 단절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세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다. 글을 쓰며 법학의 다양한 논의를 이해하는 과정이 수험법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송창

희 학생은 논문을 작성하며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 관련 선행 연구를 많이 읽은 덕에 수험에서도 해당 단원들에 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 사람은 학생 신분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법률가가 된 후 경험하는 실무와 연구에 유용한 연습경험이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소현 학생은 논문을 작성하면서 철저한 출처 표시와 같은 법률가의 기본적 덕목을 체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난해하며 선행 논의가 없는 쟁점을 맞닥뜨린 경우에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논리적 결론을 내리는 훈련 역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로스쿨생이 작성하는 논문은 학생 개인의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문 세계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최정호 학생은 역설적으로 아직 깊이 있게 배우지 않았기에 가능한 참신한 발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창희 학생도 이번 논문에 담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할당이익에 관한 논증이 학생이기에 할 수 있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하며, 심사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비판도 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주저하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

윤소현 학생은 후배들에게 논문의 작성을 권하면서 고생하며 결과물을 낸 자체로도 큰 보람이 되며 나중에 더 큰 시련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최정호 학생은 후속세대 양성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본교 교수님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추상적인 민법 개념들을 다루고 실무적 통찰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데에 이제정 교수와 정준혁 교수가 감사하게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처음 시작하는 논문의 형식으로는 판례평석을 추천하면서 판례가 마치 스쿼시의 벽처럼 다양한 논증과 쟁점을 끌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학생은 학술적 글쓰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정호 학생과 송창희 학생은 박사과정에 진입하여 법학연구를 이어갈 것을 계획 중이다. 윤소현 학생은 실무가로 활동하며 찾아낼 새로운 문제의식을 기대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임은지 학생기자

5인 5색 로스쿨 재학생 조교 활동기

교직원뿐만 아니라 로스쿨 재학생 신분 조교들도 행정, 연구, 수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학교 운영을 돕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는 틈틈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 5명을 만났다. 선발 절차나 활동 혜택 등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조교들의 마음가짐이나 재미있던 에피소드와 같은 그들만의 이야기 또한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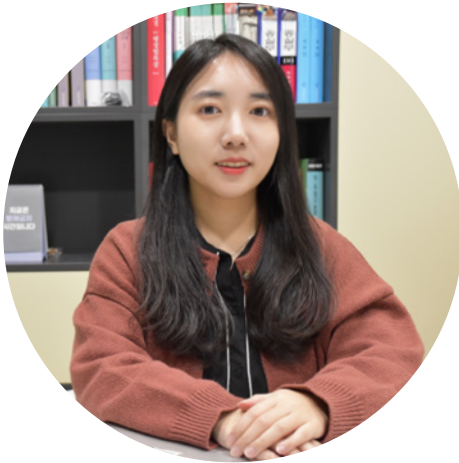


14기
김현우
전 공강의 조교(TA)

〈검찰실무1(김치훈 교수)〉TA로 1학기 동안 일한 14기 김현우입니다. TA는 교수님께서 시키는 업무를 하면 됩니다. 공지를 쓰거나 학생과의 면담을 조율하거나 과제 수합 정도요. 기타 자료 준비는 교수님이 직접 하시어 TA가 따로 할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별 주관에 따라서 TA의 업무량이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TA 활동을 통해 한 학기에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실무1〉TA를 하면 검사 교수님과도 굉장히 친해집니다. 수업 중 교수님께서 “김현우는 솔로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는 주제로 짓궂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동기들이 제가 정말로 연애 경험이 없을까 차마 사실인지 물어보지 못하더라고요.

단점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나 〈검찰실무1〉TA를 하면 검찰 준비생이라는 소문이 입혀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TA 활동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후배님들께도 추천합니다.



14기
이현아
공익법률센터 공익조교

23년 2학기에 제8기 공익조교로 활동한 14기 이현아입니다. 공익조교는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공익법률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건 관련 연구, 소송사건에 대한 서면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 명의 개인이 법조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와 회로애락을 미리 겪도록 도움으로써 법조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급여는 월 60만 원이며 그 밖에도 공익법무 분야에 대한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됩니다. 향후 공익펠로우 변호사 선발 시 본 조교 경력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로스누(학내 커뮤니티)에 선발 공고가 게재되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특정 국가의 출입국 관련 행정을 리서치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고유문자를 사용하고 판례를 비공개하는 국가였기에 구글링만으로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모색했고, 오랜만에 머리를 회전시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공익사건은 때로 색다른 것을 조사,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 매력인 것 같아요.



14기
허지영
건설법센터 조교

서울대 법전원 법학연구소 산하 건설법센터 조교로 일하고 있는 14기 허지영입니다. 주된 업무로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 용역을 보조하며 번역, 자료 제작 등을 수행합니다.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월례 세미나나 우리 학교 건설법센터 주관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교수님의 〈건설행정부〉, 〈재건축재개발〉수업조교 역할을 겸하기도 합니다.

건설법센터 조교는 장학생은 아니다 보니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며 비정기적으로 활동비를 받습니다. 건설 분야에 관한 학문적 탐구의 기회가 굉장히 커진다는 점이 본 활동의 진정한 혜택입니다. 행사 보조 과정에서 변호사님이나 유관 분야 관료분과 대화하며 실무를 깊게 접했습니다. 수업을 보조하며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로 결심하기도 했고요.

공식적인 선발 절차는 없으며 김종보 교수님께서 필요에 따라 원생들에게 조교직을 제안하게 됩니다. 수강 열의 혹은 건설 관련 분야를 전공했는지 등이 고려되는 것 같습니다.



14기
김정은
가이우스 조교

작년 2학년 때 1년간 가이우스 조교로 일한 14기 김정은입니다. 저희는 학업에 도움 되는 특강을 준비합니다. 현재는 신입생들이 낯선 공부를 헤쳐 나가게 ‘공부 방법론 특강’을 준비 중입니다. 이외에도 진로 탐색 특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이우스 조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종합실무연습〉조교 업무입니다. 〈종합실무연습〉은 6월과 8월 모의고사 사이라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수업입니다. 2학년 때 이 수업의 조교로

들어갔는데 3학년 수강생 선배들이 고생한다며 간식도 주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가이우스 조교는 이처럼 치열하게 하루하루 학업에 열중하는 후배, 동기, 선배들을 애정하고 응원하는 업무입니다. 로스쿨 내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던 점이 활동의 장점입니다.

가이우스는 교육지원센터 산하 조직입니다. 가이우스 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서 제출 후 센터 담당 교수님의 면담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성적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활동 혜택으로 소정의 활동비가 주어지고 또한 17동 내 교육지원센터 조교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 자체가 큰 부담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3월에 1년 치 업무 계획을 제출한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일하면 되기에 예기치 못한 업무가 갑작스레 생기거나 하진 않았습니



14기
최승훈
강의연구지원장학생

1년간 김웅재 교수님 강의연구지원장학생으로 복무한 14기 최승훈입니다. 먼저 강의지원 측면에서는 강의 공지 작성 외에는 별도 업무가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부분 강의 업무를 TA에게 맡기시어 저는 주로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교수님이 작성하시는 논문을 교열하거나 표를 제작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TA와 마찬가지로 강의연구지원장학생의 업무량도 어떤 교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교수님들께서는 학업에 지장 되지 않게 많이 배려해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교수님 지원과 별개로 매 학기 시험감독 5회 참석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 업무는 신경 쓸 일이 많고 감독 중 본인 공부 불가하므로 저의 시험 기간에 다른 시험의 감독을 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됐습니다.

강의연구지원장학생은 등록금 반액(로스쿨 재학생)을 감면받고, 이와 별도로 월 20만 원씩 총 6개월간 급여를 받습니다. 이를 합하면 총 410만여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어느 특별한 송년회, 연말 봉사



15기 김택민 최하늘 조승완 김범수
김민제 임기혁 박연정 엄정호 최서린

법학전문대학원 15기 9조 학생들은 연말에 모여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뜻깊은 일을 해보고 싶었다.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고, 따뜻함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런 마음에서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점차 진지해져 마지막에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 연말 봉사 모임을 소개한다. 김택민, 최하늘, 조승완, 김범수, 김민제, 임기혁, 박연정, 엄정호, 최서린 등 아홉명 학생들이 12월 27일 동대문구에 모여 만나질 간 진행한 기초 법 교육과 멘토링이다.

기말고사 전후의 준비과정

기말고사를 앞두고 김민제 학생이 학부 재학 시절 교육 봉사를 하러 다니던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한 결과, 일정을 조율하여 사전 답사를 통해 단체봉사 가능 여부에 확답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방학이 되자마자 서울대입구역 카페에 모인 조원들은 사전 답사에서 제안할 봉사 기획을 논의했다. 김범수 학생은 서울법대 공익법률센터 하계 프로보노에 참가했을 당시 활용했던 생활법률상식 수업 자료를 연계하고자 공익법률센터와 연락하여 허가를 받았고, 사전 답사는 조승완, 김범수, 김민제 학생이 가게 되었다.

사전 답사 당시에는 꽤 긴장했지만, 다행히도 기초 법 교육과 멘토링을 기획한 것이 좋은 반응을 받아 지역아동센터로부터 흔쾌한 수락을 얻어낼 수 있었다. 다만 참가 학생들의 연령대

가 하계 프로보노보다 확연히 낮은 점, 그리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법질서의 의의와 준수 의식 자체를 길러 주기를 바란다는 센터측의 요청이 있었던 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원들은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준비과정을 거쳤다. 회의를 통해 학년별 담당 멘토들을 상성이 맞도록 배치하였고, 최서린, 최하늘, 박연정 학생은 초등교사인 지인에게 자문을 구해 저학년용 강의안을 따로 제작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나눌수록 따뜻해지는 마음

아동들과 함께 하는 만나질의 시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획대로 진행한 부분과 예상치 못하게 쌓았던 추억을 포함하여 참가자 모두가 상상 이상으로 깊은 인상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한다. 이들은 봉사 활동을 마치고 뒷풀이로 새벽 3시까지 로스쿨 신입생 생활의 회포를 풀기도 했다는 후문이 있다. 조장인 김범수 학생은 “어느 해보다 뜻깊은 연말”이었다고 연말 봉사를 회고하며, “앞으로도 강의실에서 배운 것들을 주변에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김택민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진심이 담긴 소통을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의 순수함과 해맑음에 치유를 받고 왔다”라며, “타인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 기자

56년간 쌓은 모의재판, 서울법대 국제법학회



15기 이윤하, 송준선, 박정우, 이은서, 이다정

서울법대 국제법학회는 지속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현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치 아래 매년 모의재판을 개최한다. 서울대 로스쿨 자치단체 중 모의재판을 개최하는 곳은 국제법학회가 유일하다. 공익법무실습과 선행학습으로 바쁜 와중에도 모의재판을 성공적으로 끝맺고 이제 다음 기수에게 모의재판 배턴을 넘기게 된 학회 15기 임원진을 만났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학회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 나가려 하는가.

이윤하(회장) | 회장단의 업무는 지금의 학회와 국제법학회의 전통을 지켜와 주신 선배님들 간 연결고리이다. 학회원들은 현직에 계신 선배님과 소통하며 배움을 얻고, 선배님들께서는 후배들을 만나며 지난날을 추억하실 수 있다는 점이 우리 학회만의 자랑이다. 회장단으로서 펀드레이징부터 모의재판, 홈커밍데이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러한 장점을 계승하고자 했다.

더불어 국제법학회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교수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지도였다고 생각한다. 모의재판 문제를 내주시는 이재민 교수님께 항상 감사하다. 또한 이근관 교수님과 원유민 교수님, 학회 선배님으로서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이종혁 교수님의 지원도 받고 있다. 감사한 어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회장단의 역할이다.

이번 모의재판의 개요와 쟁점, 그리고 사용한 국제법이나 관습법을 간단히 소개해달라.

송준선(부회장) | 우주 산업에서 주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Astrokin國 소속의 기업 Space Odyssey가 정부기관인 ASEC과 협업하여 자원채굴을 목적으로 달과 화성을 탐사하기 시작하자, Stellapodium國이 이러한 민간 기업의 상업적인 우주 개발 활동에 이견을 표한 사안이었다. 이에 1967년 우주조약과 1979년 달 협약을 중심으로, Space Odyssey의 우주 산업 활동이 Astrokin國에 귀속되는지, 그 계획이 국제위법행위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재판부는 Space Odyssey의 행위는 Astrokin國에 귀속되고, Astrokin國은 전유금지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우주조약상 감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우주개발 계획의 중단, 재발방지 및 국제기구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Stellapodium國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국제법>을 전공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완성된 서면을 만들 어낸 방법은 무엇인가.

이다정(학술이사) | 국가책임 법리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는데, <국제법>과 <국제분쟁해결>을 수강한 원우의 정리본을 바탕으로 학회원들이 내용을 습득했다. 우주 산업이라는 쟁점을 풀어감에 있어서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선배가 후원해주시는 것으로 안다. 학회의 재정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박정우(총무이사) |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 만큼 재정 관리에 책임감을 느낀다.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매년 2월 홈커밍데이 행사 때 선배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다. 구글 드라이브로 회계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임원진끼리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만큼 선배님의 수가 상당할 것이다. 원활한 소통 방법이 있는가.

이은서(대외협력이사) | 바쁘게 일하시는 선배님들께 갑자기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러웠다. 실제로는 선배님들 모두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동하였다. 한 선배님께서는 친한 동기와 선후배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직접 저를 초대하여 행사 홍보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다. 늘 후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본받고자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 기자

청일점이지만 회장입니다

어렸을 적 매우 소심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춤을 추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다고 하는 15기 김유신 학생. 그는 무대에서 자신 있게 춤추는 모습을 동경하며, 언젠가는 그런 모습에 가까워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춤 동아리 '루덴스'가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그 꿈을 이룰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한다. 모집 마감일까지 고민하다 지원서를 냈던 기억을 돌이켜보는 지금, 김유신 학생은 루덴스의 신입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남다른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로스쿨에서 춤 공연을 준비한다는 것

난생처음 춤을 준비해서 무대에 오른다는 도전을 로스쿨에서 감행하는 일은 당연히 쉽지 않았다. 학업만으로도 부담이 상당한 생활 속에서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김유신 학생도 처음에는 막막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연 곡 팀을 이끄는 14기 선배 학생들이 쉽고 편하게 춤을 가르쳐주어서 조금씩 발전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연 준비는 오히려 로스쿨 생활을 이어나갈 원동력이 된 듯하다. 학기 중 연습에서는 춤을 머리로 익히고, 시간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에 같은 동작을 몸으로 반복하니, 실제 공연에서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여유롭게 공연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유신 학생은 로스쿨 학생들이 춤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신선한 놀라움을 주는 것 같다고 자평한다.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연습하고, 학생·교수 등 백 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춤을 선보일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 루덴스만의 특별함이 아닌가 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공동체의 끈끈한 우애 또한 소중하다.

그런 의미에서 원유민 교수의 존재는 큰 힘이 된다. 서울법대 재학 시절부터 춤을 잘 추고 좋아해 온 원유민 교수는 현재 루덴스 지도교수로서 물질상면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공연에서는 학생들과 방탄소년단의 'Dynamite' 무대를 함께하여 관객의 환호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춤을 진심으로 즐기는 지도교수의 존재는 항상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이번 학기에 는 해외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덴스 임원진과 소통을 이

Ludens!



15기 김유신 학생

어나가며 동아리 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지도교수님의 존재에 김유신 학생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청일점 회장이 그려 본 청사진

로스쿨에서 처음 춤을 접하게 된 그에게, 루덴스라는 공동체의 의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어느 순간부터 김유신 학생은 루덴스가 자신에게 선물해 주었던 시간을 후배들에게 물려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함께 임원진으로 선임된 동기들이나 앞선 임원진 선배들보다는 부족한 춤 실력이라도, 후배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이라도 많이 하자는 마음으로 나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장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김유신 학생은 '부원들의 부담은 최소로 줄이고, 보람은 극대화할 수 있는 동아리'로 루덴스를 꾸려나가고 싶다. 춤 동아리라고 하면, 합창·기악·스포츠 등 다른 동아리보다는 더 높은 기본 실력을 갖추고 가입해야 할 것 같은 진입장벽이 느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루덴스는 '초심자의, 초심자를 위한, 초심자에 의한' 집단으로서 진입장벽을 낮춰 서울법대 구성원들에게 더 크고 넓은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이다. 그러면서 공연을 보러 간 관객들에게는, "저 사람들 진짜 춤이 처음이라고?" 하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동아리이다. 앞으로도 그런 집단이 될 수 있게, 신입 회장 김유신 학생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인간은 유희할 때 비로소 완전하다. 루덴스의 신입생 대상 홍보 발표의 마지막 문구다. 과거의 자신처럼 한 번이라도 무대 위에서 멋지게 춤추는 상상을 해보았다면, 그런 꿈을 실현할 최고의 기회가 바로 루덴스일 것이라고 말하는 김유신 학생에게는 애정 어린 자신감이 보였다. "회장인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춤 동아리의 '춤' 부분을 맡아주는 저희 루덴스 회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기자

실력보다 빛나는 단단한 우정

청춘가인



14기 김연두 박진규 원지희

지난 1월 4일 진행된 제1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행사 부문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기 김연두·박진규·원지희 원우가 가인상(1등)의 영예를 안았다. 밤새 내린 함박눈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덮은 날, 경영대의 한 카페에서 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사람의 이름 글자를 딴 팀명 '진두지희'에 대한 설명으로 유쾌하고 따뜻한 인터뷰의 포문이 열렸다.

대회 출전 및 팀 결성의 계기가 궁금합니다.

연두 | 저와 진규는 1학년 때도 민사 부문에 출전했었다.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 맞는 친구끼리 밤새며 노력한 경험이 정말 재미있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미 일 년 전부터 7조 안에서 셋이 출전을 약속했었다.

지희 | 저희 모두 대회 출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같이 만나서 노는 일'로 생각했다. 로스쿨생의 '청춘'은 다양한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료들과 추억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팀의 단체 메신저 방 이름도 '청춘가인'이다!

서면 작성 과정에서 팀에 닥친 가장 큰 위기는?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연두 | 형사 부문이었지만 친족간 특례 적용에 관한 가족법적 쟁점을 맞닥뜨리게 됐다. 부가 혼외자를 인지하기 전에 친족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팀 안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진규 | 해당 쟁점에 관해 사실인정과 법리적 논증 중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팀 내 논의를 통해 서면은 어떤 학설을 따르든 결론이 도출된다고 풍부하게 작성하고, 변론에서는 요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수상한 기분이 어떠한가요? 상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희 | 워낙 훌륭한 팀이 많아 가인상 수상을 예상하지 못했다. 본선에서 결선 진출한 4팀을 호명할 때는 우리 팀을 부를 줄 몰라서 진행본부에 다시 가 확인하기도 했다. 결선 후에는 연두 언니는 4등을 했다고 확신해서 4등 팀 호명때 일어설 준비하라고 하기도 했다(웃음). 가족과 지인의 축하 속에 매우 기뻐다.

연두 | 한편, 이번 대회에서 서울대 법전원이 단체상을 수상했는데 수상자 12명이 모두 동의하여 상금으로 학교 내에 세 대의 커피머신을 설치하기도 했다. 청연상(개인 최우수상)도 함께 수상한 지희는 우리 팀에게 호텔 뷔페를 사기로 약속했다.

대회 과정에서 서면 작성이나 법률가의 역할에 관하여 느낀 점이 있다면?

진규 | 서면을 쓰는 것은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함인데, 그러한 설득의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느꼈다. 설득을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어서, 언제나 서면을 쓸 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지희 |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다양한 역량을 요하는지 이번 대회로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뿐 아니라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자세도 법률가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후배들에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준비 팀을 청합니다.

연두 | 형사 부문 준비에는 형사증거법 등 학교 강의를 열심히 수강한 게 큰 도움이 되었으니 수업을 잘 들으면 좋겠다. 한편, 학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으니 로스쿨에서의 다양한 도전과 경험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이런 대회와 배움의 환경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노출하기를 권장 드린다!

법학전문대학원 임은지 학생기자

법대의 시설관리직 근로자를 만나다

청결과 안전은 종종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쉽게 잊히곤 한다. 법대의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은 학생을 비롯한 다른 구성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늦은 밤과 이른 새벽에 분주하게 움직여 법대의 새로운 아침을 만들어낸다. 학생들의 치열한 학업도, 교수들의 빛나는 연구물도 이들의 한결같은 존재에 신세를 진다. 법대의 숨은 영웅인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을 만나 그들의 업무와 고초에 관해 들어보았다.

“학생들이 언제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품위에 관하여

— 박왕영 경비원(시설관리직)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이었지만 박왕영 경비원은 흔쾌히 72동 경비실의 한 자리를 내어주었다. 대화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그의 눈은 끊임없이 72동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CCTV 화면을 살폈다. 한 평이 조금 넘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그가 살아온 삶의 단면과 경비원으로서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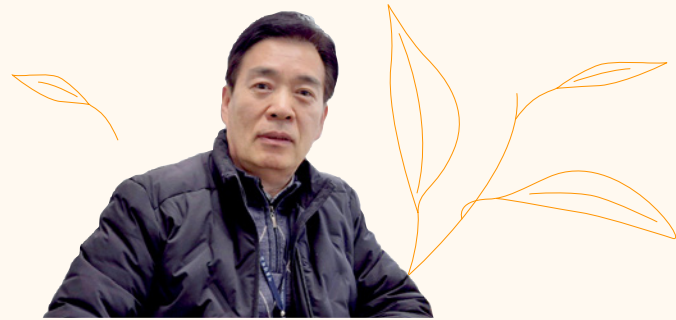
법전원 경비원의 자리에 오기까지

한 법무법인의 사무직으로 30년 넘게 일하던 그는 은퇴 후 제2의 직장으로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을 택했다. 그는 2020년 3월, 서울대학교 본부의 시설관리직 공개 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사범대학교 과학교육관에서 3년 넘게 근무를 이어가다 다음 순환보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경비업무를 배정받았다. 법대에서 근무한 것은 이제 막 6개월을 조금 넘었다. 그는 사당동에 살면서 가족들과 캠퍼스에 나들이를 오던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에는 이렇게 경비원으로 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웃었다. 우연한 기회에 안정적인 노후 일자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 다행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도 기쁘다는 말을 남겼다.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경비 업무

법대 경비 업무는 두 명의 경비원이 격일로 교대하며 진행된다. 한 번 출근하면 오전 6시 반에 나와 다음 날 오전 6시 반에 퇴근하는 식인데, 오후 11시가 넘는 시간에는 업무를 중단하고 15동 1층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아침까지 휴식을 취하며 돌발상황에 대비한다.

낮의 주된 업무는 경비실에서 출입자를 관리하고 각종 경비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일이다. 한편, 늦은 저녁이 되면 각종 강의



실과 세미나실을 비롯한 공용공간을 점검하고 순찰한다. 법대 열람실에는 늦은 밤까지 각종 공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생들의 퇴실과 전등 및 난방 전원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밤 시간대에 외부인 등의 침입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 역시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업무이다.

엄격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법대 학생들에게 전할 당부의 말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 경비원은 다음의 얘기들을 전했다. 훌륭한 인재들을 위해 열람실의 불을 켜고 따뜻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이 퇴실 시에 스스로 소등하고 난방을 끄는 습관을 들여 자원을 절약하는 모범적인 태도도 갖추기를 바란다는 점이 하나이다. 나아가 늦은 밤에는 예술대 방향의 주산홀 문 등을 잘 닫아 자동 잠금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구성원이 법대 공동체의 치안에 유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이 언제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역시 은퇴 후 새로운 직장에서 시설관리직이 겪는 고충을 직접 경험하며 비로소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을 언제나 살펴 그들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의 눈빛으로 당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임은지 학생기자

“분리수거에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쓰레기를 간소화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청결합니다, 청소 직원의 하루

— 청소노동자(시설관리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철야가 일상인 시험 기간, 대회준비 기간뿐 아니라 일반적인 학기 중에도 상대적으로 수업 시수가 많고 자습실을 이용하는 등으로 법대 시설 체류 기간이 길다. 학습 공간보다는 서식지에 가깝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이러한 학생들의 법대 생활이 가능한 데에는 끊임없이 시설을 관리하는 청소 직원들의 몫이 크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법대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며 청결 유지에 힘 써주시는 시설관리직 여사님들의 휴게실에서 뜻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청결을 책임지기 위한 일과

법대의 청결을 책임지기 위한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된다. 청소 직원들은 6시까지 출근해서 30분가량 옷을 갈아입는 등 업무를 준비한다. 6시 30분부터 팔을 걷고 전날 저녁 무렵부터 쌓인 쓰레기부터 걷는다. 행정실 직원들과 교수자의 출근 전에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학생들이 학교에 본격적으로 도착하는 시간 전에 열람실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끝낸다. 학생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복도와 계단까지 청소하면 이른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11시쯤 식사하고, 조금 숨을 돌리면 1시부터 오후 근무가 시작된다. 화장실을 재차 점검하고, 강의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다시 비우면 어느덧 3시가 훌쩍 지난다. 잠깐의 휴식 후 옷을 갈아입으면 퇴근 시간인 3시 30분이다. 이는 기자가 인터뷰를 시작한 시간이기도 하다.

서울법대 시설관리직 업무의 명암

업무 시간대가 좋다는 점이 직장선택에서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다는 대답이 많았다. 일반적인 퇴근 시간보다 이른 3시 30분에 업무가 끝나 오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서울법대

시설관리직의 장점이다. 아직 병원 등 주요기관들이 문을 닫지 않아 생활을 영위하며 일과 가정, 본업과 부업 등을 양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행정실에서 편의 제공이나 휴식시간 마련 등의 원칙을 염수하는 것 또한 장점이다.

그러나 다른 시설보다 쓰레기가 훨씬 많이 배출되는 것은 큰 고충이다. 법대에서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며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학생의 수가 다른 건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쓰레기를 걷는 일이 가장 중요하면서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라고 한다. 시험 기간 등에는 수차례 걷어도 계속해서 쓰레기통이 넘치고 복도에 쓰레기가 쌓인다. 덧붙여, 업무 분담의 명확성이 높지 않은 것을 개선 사항으로 지적하시는 여사님들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교수자의 연구실이 바뀔 때 책장 등 무거운 집기를 옮기는 업무는 외부 용역을 불러 수행을 맡겨야 할 성질의 일인데 청소 직원을 동원하곤 하는 관례는 큰 부담이 된다고 한다.

새 학기를 맞이하며, 법대 구성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역시 분리수거에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쓰레기를 간소화하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써 주기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법대 청소 직원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4층 열람실 담당 직원은 4층 열람실을 쓰는 학생과, 5층 열람실 담당 직원은 5층 열람실을 쓰는 학생과 낮이 익게 된다고 한다. 이는 여사님들뿐 아니라 기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담당 구역의 청결을 위해 힘써주시고 마음속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시설관리직 청소 직원분들에게 조금 더 감사와 존중을 표하는 새 학기가 되면 어떨까.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제 학생기자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 개최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설명회가 2023년 9월 1일(금) 84동 301호(백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접수 후 참석 확인 문자를 받은 선착순 대상자에 한정하여 현장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원장, 전종익 교무부원장, 최준규 학생부원장 등 보직 교수들이 (1) 법학전문대학원 소개 (2) 15년간 입학생 현황 (3)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에 관해 설명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홍보대사들이 로스쿨 학생 생활을 소개하였다.



2023년 서울법대 한마당

지난 9월 5일 법과대학 17동 앞 중앙광장에서 ‘2023년 법대한마당’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교수, 직원 등 서울법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식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 한편에는 트램펄린이 설치되어 학생들이 학업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공익기금’에서는 부스를 설치하여 화채와 호떡을 판매하고 수익 일부를 공익변호사지원기금 등에 적립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를 준비한 김덕현 학생회장은 “법대한마당 행사를 통해 법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우애를 쌓고,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었길 바랍니다. 법과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법대한마당이 앞으로도 이어져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추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방문단,
서울대 법전원 방문

2023. 9. 5. (화) 15:00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방문단(담맘 민사법원장 외 7인)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전종익 부원장, 정상조 교수, 허성욱 교수, 강광문 교수, 오영걸 교수)은 17동 6층 서암홀에서 협력 및 교류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 법무부 방문단이 산업기술법률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센터장 정상조 교수)에 방문을 요청하여 성사됐다. 이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조 교수가 간담회에서 기술과 법 센터 연구 및 교육활동에 대해 안내했다. 간담회 이후 사진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홍보대사의 진행으로 법대 및 도서관 투어가 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학생지원센터,
국제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가을학기 개강을 맞아 9월 26일 화요일 국제학생들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정오부터 17동 108호에서 개최되었으며,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이후 피자와 함께 국제학생들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진행되었다. 석사과정을 갓 시작한 신입생부터 한국 체류 기간이 수년 차에 접어드는 박사과정 학생까지, 다양한 국적과 경험이 한 데 모여 비교법학, 한국문화 등 폭넓은 소재로 이야기를 꽃피운 시간이었다.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학술회의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종보 교수)은 2023년 10월 18일(수)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1973년 10월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 고문에 의해 사망하였고, 사망 후 29년이 지난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사망원인이 밝혀진 바 있고, 이듬해인 2003년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101호가 최종길홀로 헌정되었다. 학술회의에서는 김종보 원장의 인사말 이후 정공식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전체사회를 보는 가운데, 김정남 전 교육문화사회수석과 안경환 전 서울대 법대 학장의 추도사에 이어 정근식 전 진실화해위원장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970년대 한국의 비민주주의와 국가폭력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최종길 교수의 죽음과 진실규명의 과정: ‘자살’로부터 ‘고문사’로”를 주제로,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전원)가 “이행기정의와 법학방법론”을 주제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과거청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임상혁 교수(숭실대 법대)가 “국가권력의 인권유린에 대한 입법적 보상”을 주제로, 이영재 교수(한양대 제3섹터)가 “인혁당사건과 국가폭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16회 BESETO Conference 개최

지난 10월 21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17동 서암홀에서 서울법대 주관의 제16회 2023 BESETO Conference가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ole of Law”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서울법대 김종보 원장의 환영사로 막을 열었고, 허성욱 교수(서울대학교), Gen Goto 교수(University of Tokyo), Xin Dai 교수(Peking University)가 각 사회를 본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Kaijie Wu 교수(Peking University)의 발표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dification of Environmental Law in China”와 Hidefusa Iida 교수(University of Tokyo)의 발표 “Sustainability Disclosure and Corporate Governance”로 구성되어 제16회 BESETO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간단한 점심 식사 후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Kangle Zhang 교수(Peking University)의 “Environmental Financing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Law and Politics of ESG” 발표와 오영걸 교수(서울대학교)의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ole of comparative Law in East Asia”를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Kazuyori Ito 교수(University of Tokyo)의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Norm of Value Adjustm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와 Stephan Sonnenberg 교수(서울대학교)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New One-Size-Fits-All Standard for the World”가 이어졌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참석한 구성원들의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폐회식에서는 전종익 교수(서울대학교), Masami Okino 교수(University of Tokyo), Xin Dai(Peking University) 교수가 맺음말을 전하며 이듬해 이어질 제17회 BESETO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생 10주년
기념의 밤 행사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전문석사과정 졸업생들이 2023년 10월 20일(금)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졸업 10주년 기념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서는 졸업생들을 비롯하여 김종보 원장, 김재형, 노혁준, 천경훈 교수, 권오승, 김건식, 호문혁 명예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는 원장 및 교수 축사, 졸업생 자유발언,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되었고, 김종보 원장은 1기 졸업생들의 행사에서 시작된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져 가길 희망한다면서 본 행사를 환영하였다.



2023년 가을맞이 점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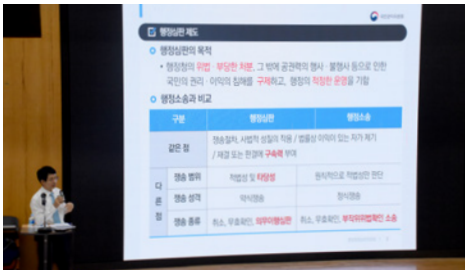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12시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에서 ‘가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 교수진, 직원을 포함한 모든 법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스탠딩 파티로 진행된 식사 자리에서는 많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오가며 담소를 나누었다. 김종보 원장은 “캠퍼스에 가득한 가을 기운을 함께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종민 위원장
초청강연 진행

2023년 11월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초청강연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4동 301

호(주산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에는 박종민 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행정심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서 박종민 위원장은 법조인의 행정심판제도 이해의 필요성을 다양한 예시를 들어 강조하였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판결에 비해 권리구제의 방법이 다양할 뿐 아니라, 청구와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재결에 이르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등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에 이룰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청심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관련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개별법률상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로 규율되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관련 사건을 수임할 경우 행정심판제도의 활용 역량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박종민 위원장은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하여 행정심판이라는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누락하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과 다를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학도인 청중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정의의 광장 리모델링 기념
타종 행사 및 간담회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11시 30분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광장에서 ‘정의의 광장 리모델링 기념 타종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 교수진, 직원, 학생 등 우리 법대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의의 광장 리모델링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는 김종보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후 ‘정의의 종’ 타종이 3회 이루어졌다. 정의의 광장 리모델링을 축하하며 법대 교수, 학생, 직원 모두가 어우러져 4명씩 종

을 올렸다. 기념 촬영 후 참석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17동 교수휴게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제12회 학생 홍보대사 임명식

제12회 학생홍보대사 임명식이 2023년 11월 8일, 17동 2층 접견실에서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김가영, 김승연, 박수민, 엄정호 학생이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앞으로 1년 간 입학설명회, 국제교류 외빈방문을 포함한 학교 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임명식은 임명장 증정과 단체사진 촬영으로 이루어졌다.



제4회 서울법대 모의법정 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3년 11월 13일(월) 오후 7시부터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3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를 개최하였다. 로스쿨 실무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법정 변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모의재판> 교과목을 수강하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전원이 3~5인씩 팀을 이루었고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2팀이 결승전에 참여하였다. 결승전에 오른 원고 변호인단(김동현 팀장, 김유빈, 김현지, 송기우, 이명원)과 피고 변호인단(박진규 팀장, 김동현, 김민섭, 정현찬)은 재판부인 전원열 교수, 김재형 교수(前 대법관)와 권영준 대법관(前 교수) 앞에서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상(우승)은 원고팀이, 금상(준우승)은 피고팀이 차지하였다. 최

우수변론상은 피고팀의 김민섭 원우가 수상하였다. 이번 모의법정대회 문제는 다음과 같다. 원고(병원) 측이 피고(환자와 그 자녀들)의 병실 퇴거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측은 반소로써 원고에 대해 위자료와 간병비를 청구하였다. 주로 진료계약의 체결,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고지설명의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등이 쟁점이 되었다. 재판장을 맡은 김재형 전 대법관은 강평에서 “양측 변호인단의 변론과 서면 모두 지금 바로 실무에 뛰어들 정도로 뛰어나며, 앞으로도 법학 공부에 정진해서 훌륭한 법률가가 되길 바란다”라며 참가팀들을 크게 격려했다.



제8회 학봉상 개최

지난 12월 12일 화요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2023년 제8회 학봉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故 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후원한다. 이날 학봉상은 논문·논단부문, 법학논문 부문, 언론보도 부문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논문·논단 부문은 한국사회와 인구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공모하여 우수상 1편, 장려상 3편을, 자유논단 부문에서 장려상 1편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연구논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김수영(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의 “초 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 - 돌봄 재분배를 위한 법의 역할: 통계증거에 반영된 구조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시상 및 소감 발표가 끝난 후에는 2024년 제9회 학봉상의 주제 발표 및 공모가 있었다, 심사위원 및 수상자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축하를 나누었다. 학봉상은 논문·논단부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반도미래인구위원회, 한국인구학회의 후원을, 언론보도부문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협찬을 받아 개최하고 있다.



2024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3년 12월 21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주산홀(84동 301호)에서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전문석사과정)의 입학을 환영하고 학교생활에 관해 안내하기 위해 개최된 본 행사는 원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약 한 시간 동안 학생부원장의 교과과정 및 학생복지 안내, 서울대 로스쿨 학생홍보대사와 학생회의 학교생활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후 학생회 주관으로 학내에서 조별로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후 각 조별로 식당으로 이동하여 뒷풀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일우재단,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으로 재단 장학생 선발

한진그룹 일우재단이 올해(2024학년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단 장학생을 선발한다. 일우재단 이사회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은 2024. 1. 11. 목요일 정오 법전원 원장실에서 ‘일우재단 서울대 로스쿨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티타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일우재단은 올해 1억 5천만 원, 내년(2025학년도)부터 매년 2억 5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본교에 기부할 예정이다. 일우재단의 기부로 올해 2

학년 1학기로 진입하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명은 각 졸업할 때까지 4개 학기 등록금 및 생활비 총 1,2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진그룹 일우재단은 1991년 설립되어 ‘사람과 물자 수송과 문화교류는 일맥상통한다’라는 뜻을 실천하고자 국내외 장학사업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2023학년도 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2024년 2월 26일(화)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식은 전종익 교무부원장의 학사보고와 김중보 원장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우창록 법대 동창회장의 축사와 졸업생 대표 2인의 답사가 이어진 뒤에는 참석한 졸업생에 대하여 학위 수여와 성적우수상 등의 상장 수여가 진행되었다. 김중보 원장은 사회로 나갈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법조인의 자세를 갖추 것을 당부했다. 김지연 법학박사 졸업생은 가족과 동료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면서도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법률가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법학박사 15명, 법학석사 23명, 법학전문박사 3명, 법학전문석사 150명을 포함하여 총 191명에 대한 학위 수여가 이루어졌다.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개최

2024년 2월 29일 (목) 15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산홀(84동 301호)에서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최준규 학생부원장의 개식(開式) 선언, 국민의례, 교수 소개, 김중보 원장의 축사, 쿠팡 강한승 대표(사법연수원 23기)의 기념 강연, 교가 제창 순으로 이루어졌다. ‘SNU Law 합창단’과 ‘공연음악죄(교내 기악부)’가 축하공연으로 신입생을 맞이하기도 했다. 김중보 원장은 입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지, 덕, 체 모두를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강한승 대표는 강연에서 사법, 입법,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그의 경력을 소개하며 도전하는 마음과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법조인이라는 꿈을 위해 달려갈 신입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이날 입학식은 많은 신입생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입학식 후 곧바로 본교 정의의 광장에서 타종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타종 행사는 올 2024학년도 입학식을 맞아 처음 진행된 자리로, 입학생들 모두가 그 의미를 깊고 묵직한 종소리와 함께 가슴에 새겨 올바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되었다. 법전원 원장단과 학생 대표들의 타종 후 조별로 정의의 종 앞에서 기념 촬영식이 있었다. 이후 조별 지도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법대 세미나실에서 조별모임의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되었다.



연구소·센터 소식

법학연구소, 2023년 2학기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송 옥렬 교수)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9월 13일에는 박정훈 명예교수(서울대 법전원)가 “공법과 사법의 구별—공법학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9월 20일에는 조영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인구로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0월 4일에는 김승섭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0월 11일에는 이재민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안개속 미로찾기—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0월 25일에는 김호 교수(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다산 정약용의 개혁론—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1월 1일에는 조은서 박사(서울대 AI연구원)가 “자연어 처리의 역사: 기계번역에서 ChatGPT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1월 8일에는 이근관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Thibaut-Savigny 법전논쟁(法典論爭)과 국제법—UN 국제법위원회의 연혁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1월 15일에는 윤성철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가 “빛”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1월 22일에는 홍중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법학연구소, 2023년 공동연구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송옥렬 교수)는 2024년 1월 다양한 주제의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연달아 개최하였다. 먼저 1월 18일(목),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05호에서 “인권과 정치”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책임자 신윤진 교수(서울대 법전원)를 비롯하여 최계영 교수(서울대 법전원), 송지우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이주영 연구교수(서울대 인권센터)가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1월 25일(목), 서울대학교 17동

서암홀에서 “이론과 실무의 동행: 그 실제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책임자 최봉경 교수를 비롯하여 김도균 교수, 김재형 교수, 이동진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문)가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1월 26일(금), 서울대학교 17동 서암홀에서 “민법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책임자 이계정 교수(서울대 법전문)를 비롯하여 이상범 교수(서울대 법전문), 양천수 교수(영남대 법전문), 권경휘 교수(영산대 경찰행정학과)가 발표하였다.



공익인권법센터, 공동학술대회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그 헌법적 의미’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공법학회는 2023년 11월 17일(금)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그 헌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전종익 교수(서울대 법전문)의 사회로 조형목 판사(헌법재판소 파견)가 ‘권한쟁의 제도를 통한 국회 운영에 대한 통제와 그 헌법적 의미’이라는 주제로, 최정인 교수(서원대 경찰행정학부)가 ‘영국의 법률안 사전검토 제도의 운영현황과 우리나라 제도운영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종현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과 배정훈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 4기 SNU Law 연구자포럼 및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출범

2023년 10월 29일(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서울법대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가 주최하

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4기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실무가 및 잠재적 연구자들의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4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 출범식에서, 전상현 교수(센터장)는 법학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연구자포럼에 참여하게 된 연구자들을 축하하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자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격려했다. 헌법·행정법, 형사법, 민법, 환경법, 법철학·법사회학·법인류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자포럼 참가자들은 1년 동안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1월 6일(토)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가 주최하는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제4기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제4기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전상현 교수는 참여자들이 졸업 전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 향후 연구자로서의 활동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법이론연구센터 콜로키움 및 제 3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법학의 근본문제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콜로키움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모두 네 차례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9월에는 박미옥 작가가 “사회병리와 범죄 수사 - 인간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를, 10월에는 변재원 작가가 “장애시민 불복종 - 장애인권운동의 이해”를, 11월에는 법무법인(유)원의 강금실 대표 변호사(전 법무부장관)가 “지구의 위기와 지구법학”을, 12월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유진 연구위원이 “위험한 범죄자”와 인간 분류의 과학”을 각각 발표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는 앞으로도 매학기 3-4차례의 정기 콜로키움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법이론연구센터는 2024년 2월 1일(목) 법무법인 율촌 벡처홀에서 ‘제3회 율촌-온을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하흔수 씨가 <동양 전통법의 운영원리와 정신들: 중국 북송대 아문사건의 전개와 평가>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으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수영씨의 <일하는 미혼모의 유급노동과 무급돌봄 병행에 관한 질적 연구: 노동의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의사결정 맥락을 중심으로>가, 장려상으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우석 씨의 <힙합음악과 저작권법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이현아 씨의 <보살핌의 윤리로 바라본 베이비박스과 보호 출산>이 각각 선정되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아태법포럼 개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세계 각지의 법조인을 초빙하여 의견을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법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제49회 포럼에서는 DLA PIPER의 Jay Finkelstein변호사가 “Using Experiential Learning and Collaborative Teaching to Train the ‘Practice Aware’ Lawyer”라는 주제로 로스쿨에서의 실무적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고, 제50회 포럼에서는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Lars Klöhn교수가 “MiCAR and electronic securitie - Developments in Europe and Germany -”라는 주제로, University of Hamburg의 Dörte Poelzig 교수가 “Shadow trading in US and EU law”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제51회 포럼에서는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의 Anne Weyembergh교수가 “The European Union Area of Criminal Justice: Main Achievements and Challenge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제52회 포럼에서는 Kristy Balsanek(DLA PIPER)변호사가 “An update on COP28 - 2023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라는 주제로, 제53회 포럼에서는 미국 루이빌대학 Louis D. Brandeis 로스쿨 Russell L. Weaver 교수가 “From Gutenberg to the Internet: Free Speech, Advancing Technology, and the

Implications for Democracy”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각 포럼에서는 다수의 학자와 연구원 그리고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공익법률센터, 임상법학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복기 교수)와 한국리걸클리닉협회가 2023년 12월 11일(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제4회의실에서 “임상법학 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각 로스쿨에서 임상법학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 및 겸임교원이 대상으로, 국내외 임상법학 교육 전문가를 한 자리에서 모시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부 세션에서는 와세다대학교 Takao Suami 교수, 버클리 로스쿨 산하인 East Bay Community Law Center의 Rosa Bay 부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Stephan Sonnenberg 교수가 해외 임상법학 사례들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제2부 세션에서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아주대학교 리걸클리닉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원 교수, 인하대학교 이연지 임상교수, 부산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류제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 전남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이소아 “공익변호사를 위한 동행” 소속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전별 K&P파트너스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배인규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각 소속 대학교의 리걸클리닉 수업 운영 사례 및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공익법률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임상법학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국내 리걸클리닉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익법률센터, 제 5회 동계공익법무실습 보고대회 개최

2024년 2월 22일(목) 공익법률센터는 동계공익법무실습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1학년 학생 141명은 환경/보건, 지역사회 법률구조, 여성/아동/장애를 다루는 32개의 공익기관에서 약 2개월간 법무실습을 진행하였다. 전종익 교무부장(서울대 법전문)의 인사말로 시작된 보고대회에서는 각 팀의 발표와 10개 팀에 대한 시상(단합상, 노력봉사상, 신속상, 빛나는 나홀로상, 포토상, 경청상, 센터장상)이 이루어졌다. 참가 학생들은 이론과 판례로만 배웠던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었고 법학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우영 센터장(서울대 법전문)은 다양한 공익현장에서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했던 활동이 향후 법조인의 삶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동계공익법무실습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2023 ESG 컴플라이언스 리더십 세미나 개최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는 2023년 10월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 주최하는 [2023 ESG 컴플라이언스 리더십 세미나]를 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상협 위원장(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제1부 ESG 경영 및 기술]에서 한국딜로이트그룹 Nicola Weir 수석위원(한국딜로이트그룹)이 ‘Blueprint to Greenprint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기술’, Jean-Pascal Tricoire 회장(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

축기술 및 기업의 강화된 그린 프리미엄’, 김종남 원장(前 에너지기술연구원)이 ‘탄소중립과 에너지기술의 미래’를 강연하였다. [제2부 ESG 규제]에서는 백태영 교수(ISSB위원, 성균관대학교)가 ‘ISSB와 ESG공시 규제 및 기업대응’, 채민우 법무팀장(스타벅스코리아)이 ‘기업 ESG 컴플라이언스 및 적응사례’를 강연하였다.

금융법센터,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023년 11월 2일 경정법센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주최로 백주년기념관에서 ‘지주회사 제도 25년: 평가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공정위원회 추진시책의 배경과 주요내용 등을 각계 각층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계, 기업계 등 공정거래 커뮤니티와의 정책교류 확대를 통해 경쟁정책에 대한 대외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공익산업법센터 제22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익산업법센터는 2023년 10월 19일 ‘디지털 기술에 따른 국가-시장 관계 변화와 공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계·일반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에 따른 국가-시장 관계 변화와 공법의 역할에 대해 되새기고, 이를 통해 민간 협력 도모에 기여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또한 주요국의 다양한 논의와 경험 등 귀중한 지적 자산을 국제적으로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릴레이
도서 추천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정금식 교수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현재 우리의 삶과 의식은 역사의 축적물이다. 행동에는 옛부터 이어진 규범 내지 규범의식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재해 있고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제약한다. 이 책에서는 익숙한 용어나 실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속담 등에서 우리 전통사회에서 법이 형성된 배경과 법이 삶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였다. 특히 유교적 질서가 확립되기 전에 대한 서술은 경이 그 자체이다. 우리 법의 근원과 역사에 교양적 관심을 가진 독자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거리로 추천한다.

박병호 |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2004 7쇄)



한국의 서양법 수용사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은 19세기말 일본을 거쳐 받아들이는 서구법이다. 서구법을 수용한 과정은 서세동점의 제국주의-자본주의-확장의 일환이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서구법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활용하려는 과정을 간결하고 세련된 필치로 그려내었다. 특히 권리, 의무, 법철학 등 현재 용어의 사적 고찰은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디딤판이 될 것이다. 지금의 모습이 궁금한 독자에게는 사이다와 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다.

최종고 | 박영사 | 1982



**사마천 사기
중국 고대사회의 형성**

사마천의 사기(史記)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사기를 통독하는 것은 교양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고전(古典/苦戰)'인지도 모른다. 이 책은 역자가 중국 고대사회의 형성이라는 시야에서 사기의 핵심적인 내용들 번역하였다. 담담하게 그려낸 수많은 인간의 모습에서 다른 삶을 발견하고, 권력을 향한 욕망에서 추함을 확인한다. 사기를 읽는 것은 부조리한 인간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긍정을 잃지 않는 사마천에게서 역사가의 참모습을 찾는 과정이다.

司馬遷 撰/ 이성규 편역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7



중국신화전설 1-2.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인간이 시를 넘어설 수 있을까? 나날이 달라지고 다양해지는 시를 이길 수는 없을 듯하다. 반대로 우리는 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신화는 상상력의 원천이다. 정서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중국의 신화와 전설은 사고를 근원에서부터 다르게 할 영감을 준다. 머리를 식힐 겸 재미삼아 읽으면서 사고의 한계와 실험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날아갈 준비를 하려면 산해경(山海經)과 함께 읽어보라.

위옌커, 전인초 김선자 옮김 | 民音社
| 1998

Next Decade 기금 (발전기금) 안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 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2동 615호

세제 혜택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100%	법인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여타 기관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 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질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 人 양성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1. 세 제 혜 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2. 네 이 밍 예 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3.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만 원(1구좌)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1. 온라인 기부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 <http://secure.donus.org/snulaw>
•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연결 됩니다.



2. 전화·이메일
• 전화. 02.880.2448
• 이메일. lawgiving@snu.ac.kr
• 카카오톡채널. snulawfund

법 학 발 전 재 단 및 발 전 기 금 출 연 현 황

2023. 9. 1. — 2024. 2. 29.

노주환	10,000	2023.09.05	정철호	10,000	2023.09.08	이현선	50,000	2023.09.08
한화시스템(주)	15,000,000	2023.09.05	김정민	10,000	2023.09.08	오태욱	100,000	2023.09.08
한화비전 주식회사	15,000,000	2023.09.05	강윤구	10,000	2023.09.08	신혜주	50,000	2023.09.08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15,000,000	2023.09.05	이종준	10,000	2023.09.08	박진호	10,000	2023.09.08
이윤진	10,000	2023.09.08	윤아현	10,000	2023.09.08	김지수	10,000	2023.09.08
김효준	10,000	2023.09.08	석소현	10,000	2023.09.08	김다연	30,000	2023.09.08
박정현	30,000	2023.09.08	이창규	10,000	2023.09.08	박은정	10,000	2023.09.08
신동일	70,000	2023.09.08	이종화	50,000	2023.09.08	박상록	10,000	2023.09.08
홍성혜	10,000	2023.09.08	유석호	50,000	2023.09.08	이윤진	10,000	2023.09.08

20

21

이의영	30,000	2023.09.11	오테옥	100,000	2023.10.08	이창규	10,000	2023.11.08	김정태	35,000	2023.12.06	박상록	10,000	2023.12.08	이동주	35,000	2023.12.13
도선사협회	15,000,000	2023.09.20	신혜주	50,000	2023.10.08	유석호	50,000	2023.11.08	8기 박시우	35,000	2023.12.06	이윤진	10,000	2023.12.08	김다빈	35,000	2023.12.13
이경준	100,000	2023.09.20	박진호	10,000	2023.10.08	이현선	50,000	2023.11.08	최찬영	70,000	2023.12.06	김효준	10,000	2023.12.08	최효재	35,000	2023.12.13
권영준	40,000,000	2023.09.25	김지수	10,000	2023.10.08	오테옥	100,000	2023.11.08	박희운	35,000	2023.12.06	박정현	30,000	2023.12.08	강다윤	35,000	2023.12.13
정병기	10,000	2023.09.25	김다연	30,000	2023.10.08	신혜주	50,000	2023.11.08	총20건	427,200	2023.12.06	신동일	70,000	2023.12.08	엄지은	35,000	2023.12.13
방윤섭	100,000	2023.09.25	박은정	10,000	2023.10.08	박진호	10,000	2023.11.08	김국태	10,000	2023.12.06	홍성혜	10,000	2023.12.08	전세환	35,000	2023.12.13
김하영	50,000	2023.09.25	박상록	10,000	2023.10.08	김지수	10,000	2023.11.08	김연각	10,000	2023.12.06	전민서	35,000	2023.12.08	정규록	105,000	2023.12.14
유홍수	100,000	2023.09.25	이윤진	10,000	2023.10.08	김다연	30,000	2023.11.08	이지영	10,000	2023.12.06	이유진	35,000	2023.12.08	안수진	35,000	2023.12.14
홍석재	50,000	2023.09.26	이의영	30,000	2023.10.10	박은정	10,000	2023.11.08	정서용	35,000	2023.12.07	유은지	35,000	2023.12.08	최호연	35,000	2023.12.14
최지석	10,000	2023.09.26	이경준	100,000	2023.10.20	박상록	10,000	2023.11.08	이지영	10,000	2023.12.08	이희경	35,000	2023.12.08	고정은	140,000	2023.12.14
전일호	10,000	2023.09.26	방윤섭	100,000	2023.10.25	이윤진	10,000	2023.11.08	김연각	10,000	2023.12.08	김형석	12,500	2023.12.09	신철민	35,000	2023.12.14
노미리	1,000,000	2023.10.04	김하영	50,000	2023.10.25	김효준	10,000	2023.11.08	정철호	10,000	2023.12.08	이의영	30,000	2023.12.11	5기 김유정	35,000	2023.12.14
김효준	10,000	2023.10.08	홍석재	50,000	2023.10.25	박정현	30,000	2023.11.08	김정민	10,000	2023.12.08	임은지	35,000	2023.12.11	7기 이채린	35,000	2023.12.15
박정현	30,000	2023.10.08	최지석	10,000	2023.10.25	신동일	70,000	2023.11.08	강윤구	10,000	2023.12.08	이현선	35,000	2023.12.12	조민주	35,000	2023.12.15
신동일	70,000	2023.10.08	전일호	10,000	2023.10.25	홍성혜	10,000	2023.11.08	이종준	10,000	2023.12.08	최완	35,000	2023.12.12	김준영	35,000	2023.12.15
홍성혜	10,000	2023.10.08	유홍수	100,000	2023.10.25	이의영	30,000	2023.11.10	윤아현	10,000	2023.12.08	박준우	50,000	2023.12.12	문영찬	35,000	2023.12.15
정철호	10,000	2023.10.08	김연각	10,000	2023.11.07	학봉장학회	100,000,000	2023.11.14	석소현	10,000	2023.12.08	김병국	70,000	2023.12.12	신현집	35,000	2023.12.15
김정민	10,000	2023.10.08	이지영	10,000	2023.11.07	이경준	100,000	2023.11.20	이창규	10,000	2023.12.08	임규선	70,000	2023.12.13	임민희	35,000	2023.12.15
강윤구	10,000	2023.10.08	이지영	10,000	2023.11.08	방윤섭	100,000	2023.11.27	유석호	50,000	2023.12.08	민보현	35,000	2023.12.13	전우석	35,000	2023.12.15
이종준	10,000	2023.10.08	김연각	10,000	2023.11.08	김하영	50,000	2023.11.27	이현선	50,000	2023.12.08	공현지	35,000	2023.12.13	허은지	35,000	2023.12.15
윤아현	10,000	2023.10.08	정철호	10,000	2023.11.08	최지석	10,000	2023.11.27	오테옥	100,000	2023.12.08	정선아	70,000	2023.12.13	성하경	35,000	2023.12.15
석소현	10,000	2023.10.08	김정민	10,000	2023.11.08	전일호	10,000	2023.11.27	신혜주	50,000	2023.12.08	홍규민	35,000	2023.12.13	김윤민	35,000	2023.12.15
이창규	10,000	2023.10.08	강윤구	10,000	2023.11.08	유홍수	100,000	2023.11.27	박진호	10,000	2023.12.08	천기섭	35,000	2023.12.13	최승혁	35,000	2023.12.15
이종화	50,000	2023.10.08	이종준	10,000	2023.11.08	강다영	35,000	2023.12.06	김지수	10,000	2023.12.08	지용환	35,000	2023.12.13	이채현	35,000	2023.12.15
유석호	50,000	2023.10.08	윤아현	10,000	2023.11.08	이수안	35,000	2023.12.06	김다연	30,000	2023.12.08	김일리	35,000	2023.12.13	이태희	35,000	2023.12.15
이현선	50,000	2023.10.08	석소현	10,000	2023.11.08	정영운	35,000	2023.12.06	박은정	10,000	2023.12.08	최제환	35,000	2023.12.13	경윤주	35,000	2023.12.15

이성진	35,000	2023.12.15	권영호	35,000	2023.12.19	유정민	35,000	2023.12.22	조수현	35,000	2023.12.28	석소현	10,000	2024.01.08	이지영	10,000	2024.02.08
이준호	35,000	2023.12.15	김지원	35,000	2023.12.19	이종욱	35,000	2023.12.22	정희정	35,000	2023.12.28	이창규	10,000	2024.01.08	김연각	10,000	2024.02.08
양건호	35,000	2023.12.15	김경환	35,000	2023.12.19	장재완	35,000	2023.12.22	김훈섭	35,000	2023.12.28	이종화	50,000	2024.01.08	정철호	10,000	2024.02.08
이서호	35,000	2023.12.15	김연진	350,000	2023.12.19	김현우	35,000	2023.12.23	최이정	35,000	2023.12.28	유석호	50,000	2024.01.08	김정민	10,000	2024.02.08
박준형	35,000	2023.12.15	도시락캠페인	5,730,000	2023.12.20	방윤섭	100,000	2023.12.26	김민혁	35,000	2023.12.28	이현선	50,000	2024.01.08	강윤구	10,000	2024.02.08
김동길	35,000	2023.12.16	박수빈	35,000	2023.12.20	김하영	50,000	2023.12.26	송태욱	105,000	2023.12.29	오테욱	100,000	2024.01.08	이종준	10,000	2024.02.08
12기 이승호	35,000	2023.12.18	이철민	35,000	2023.12.20	최지석	10,000	2023.12.26	신준섭	35,000	2023.12.29	신혜주	50,000	2024.01.08	윤아현	10,000	2024.02.08
류재현	500,000	2023.12.18	이하정	35,000	2023.12.20	전일호	10,000	2023.12.26	이재전	70,000	2023.12.29	박진호	10,000	2024.01.08	석소현	10,000	2024.02.08
황지원	105,000	2023.12.18	이경준	100,000	2023.12.20	유홍수	100,000	2023.12.26	노호경	35,000	2023.12.30	김지수	10,000	2024.01.08	이창규	10,000	2024.02.08
김민수	35,000	2023.12.18	남승민	35,000	2023.12.20	문민영	70,000	2023.12.26	원대성	35,000	2023.12.30	김다연	30,000	2024.01.08	이종화	50,000	2024.02.08
정우영	70,000	2023.12.18	홍승희	35,000	2023.12.21	이유미	35,000	2023.12.26	고윤아	35,000	2023.12.30	박은정	10,000	2024.01.08	유석호	50,000	2024.02.08
김찬호	35,000	2023.12.18	양태용	35,000	2023.12.21	김은집	35,000	2023.12.26	김광현	35,000	2023.12.30	박상록	10,000	2024.01.08	이현선	50,000	2024.02.08
김병민	35,000	2023.12.18	최정윤	35,000	2023.12.21	박성태	35,000	2023.12.26	황동하	35,000	2023.12.30	이윤진	10,000	2024.01.08	오테욱	100,000	2024.02.08
김영서	70,000	2023.12.18	김태완	35,000	2023.12.21	전영진	35,000	2023.12.26	김은집	35,000	2023.12.30	이의영	30,000	2024.01.10	신혜주	50,000	2024.02.08
이규철	35,000	2023.12.19	양동윤	35,000	2023.12.21	박희우	535,000	2023.12.26	이지혜	35,000	2023.12.30	김효준	10,000	2024.01.12	박진호	10,000	2024.02.08
김현지	35,000	2023.12.19	홍유정	35,000	2023.12.21	나인성	70,000	2023.12.27	김재완	140,000	2023.12.30	박정현	10,000	2024.01.12	김지수	10,000	2024.02.08
정은혜	35,000	2023.12.19	김효정	175,000	2023.12.21	김일주	35,000	2023.12.27	이희경	35,000	2023.12.30	신동일	70,000	2024.01.12	김다연	30,000	2024.02.08
이소은	105,000	2023.12.19	최진수	35,000	2023.12.21	오혜인	350,000	2023.12.27	김동연	105,000	2023.12.30	홍성혜	10,000	2024.01.12	박은정	10,000	2024.02.08
황규연	35,000	2023.12.19	김지연	35,000	2023.12.21	노다향	35,000	2023.12.27	김국태	10,000	2024.01.08	이경준	100,000	2024.01.22	박상록	10,000	2024.02.08
원대성	70,000	2023.12.19	이여정	35,000	2023.12.21	오지현	35,000	2023.12.27	이지영	10,000	2024.01.08	방윤섭	100,000	2024.01.25	이윤진	10,000	2024.02.08
백승일	35,000	2023.12.19	(재)홍진기법률연구재단	8,300,000	2023.12.21	김현재	35,000	2023.12.27	김연각	10,000	2024.01.08	김하영	50,000	2024.01.25	김효준	10,000	2024.02.12
김재희	105,000	2023.12.19	주경숙	150,000	2023.12.21	박가영	35,000	2023.12.27	정철호	10,000	2024.01.08	최지석	10,000	2024.01.25	박정현	10,000	2024.02.12
안학범	70,000	2023.12.19	박진재	50,000	2023.12.21	박지은	50,000	2023.12.27	김정민	10,000	2024.01.08	전일호	10,000	2024.01.25	신동일	70,000	2024.02.12
강민정	35,000	2023.12.19	송화	35,000	2023.12.21	조단비	35,000	2023.12.27	강윤구	10,000	2024.01.08	유홍수	100,000	2024.01.25	홍성혜	10,000	2024.02.12
류정민	35,000	2023.12.19	주경숙법대72입	150,000	2023.12.21	이은총	35,000	2023.12.28	이종준	10,000	2024.01.08	마상소프트	20,000,000	2024.01.29	이의영	30,000	2024.02.13
손승우	35,000	2023.12.19	박진재940504	50,000	2023.12.21	김지수	70,000	2023.12.28	윤아현	10,000	2024.01.08	김국태	10,000	2024.02.08	권일환	5,000,000	2024.02.19

김지민	6,500,000	2024.02.19	재단법인 일우재단	50,000,000	2024.02.20	김하영	50,000	2024.02.26
법무법인율우	10,000,000	2024.02.19	법무법인 율촌	1,200,000	2024.02.20	최지석	10,000	2024.02.26
이현수	7,500,000	2024.02.19	이경준	100,000	2024.02.20	전일호	10,000	2024.02.26
한영근	5,000,000	2024.02.19	재단법인 나은	25,000,000	2024.02.23	유홍수	100,000	2024.02.26
한종엽	2,500,000	2024.02.19	이근관	10,000,000	2024.02.23			
홍창우	13,500,000	2024.02.19	방윤섭	100,000	2024.02.26			

* 기부정보는 기부자의 익명약정 요청 및 신청서가 미접수된 경우 해당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홍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예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근조기	●	●	●	●	●	●	-